[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주간:知

이미 해봤던 게임 (5월 4주)

이재원 Market Analyst 02 3770 5719 I jaewon2.lee@yuantakorea.com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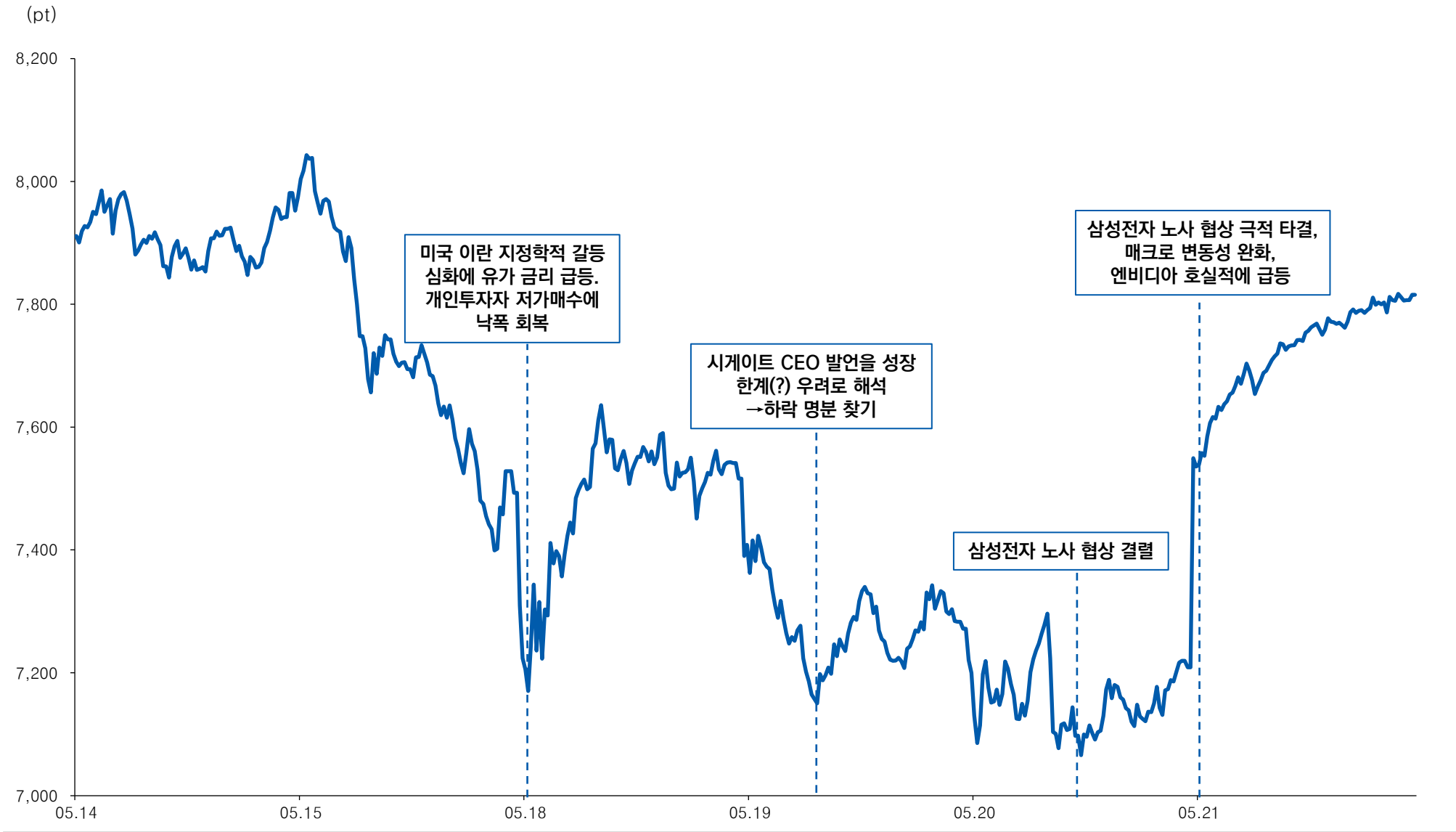
SUMMARY

이미 해봤던 게임 (5월 4주)

- 주간(5/14~5/21) KOSPI, KOSDAQ 각각 2.1%, 7.2%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주도주 중심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내외 변수로 인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이슈, 미국·이란 지정학 리스크, AI Capex 지속성 우려가 차익실현의 명분으로 작용했으나, 주 후반에는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와 엔비디아 호실적을 계기로 반도체 중심의 상승 추세가 유지된 양상입니다.
- 이번 조정은 추세 훼손이라기보다 이미 경험했던 과열 해소 과정에 가깝습니다. 유가와 금리 상승은 할인율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AI Capex 사이클과 반도체 이익 추정치 상향이 유지되는 한 주도주 추세를 훼손하기에는 제한적인 변수입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보다는 이익 모멘텀의 지속 여부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순매도 규모보다 외국인 지분율 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누적 순매도는 절대 금액 기준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존 보유 대형 반도체의 평가가치 상승이 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이탈이라기보다 반도체 급등 이후의 차익실현과 기계적 리밸런싱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변수입니다. DS 특별성과급 신설은 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이나, 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닌 자사주이며 매각 제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기 현금 유출과 즉각적인 매물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조합원 투표 가결 시 파업 리스크 완화와 생산 차질 우려 해소 요인으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 업종 전략 측면에서는 반도체 중심 주도주 비중 유지가 여전히 우선입니다. 함께 가야할 동반자로는 이익 개선이 확인되나 낙폭이 과대했던 조선, 방산, 화장품, 증권, 백화점 등 낙폭과대 실적주를 선호합니다.

다사다난 했지만 돌아보면 매수기회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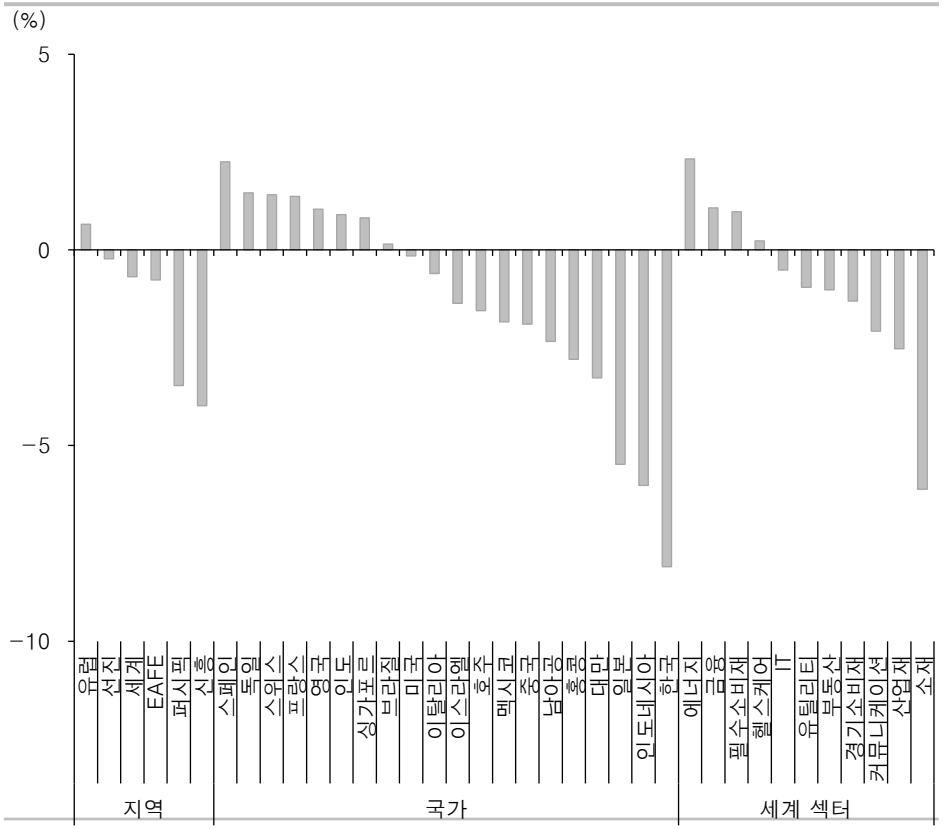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주식시장 Review : 대내외 변수 영향에 차익실현 매물 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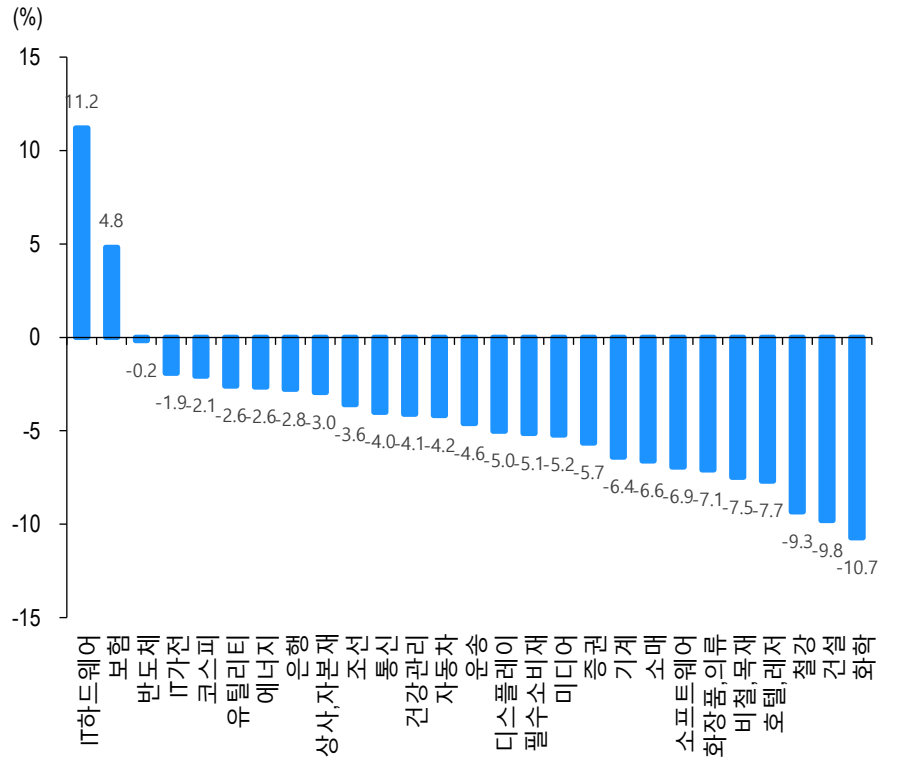
- 주간(5/14~5/21) KOSPI, KOSDAQ 각각 2.1%, 7.2% 하락. 장중 8,000pt 돌파 후 급락한 이후 대내외 변수 악화에 변동성
- 특히 삼성전자 파업 이슈가 주간 저가 기준 7,000pt 근접하게 하락 야기. 21일 1) 삼성전자 노사 합의 2) 엔비디아 호실적 3) 지정학적 갈등 완화 모두 이뤄지며 대폭 반등
- 업종별로 IT하드웨어, 보험 단독 주간 상승. 상승폭 가장 컸던 반도체가 반등폭도 가장 크며 주간 수익률 3위, 약보합 마감

주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5월 20일 종가 기준

주간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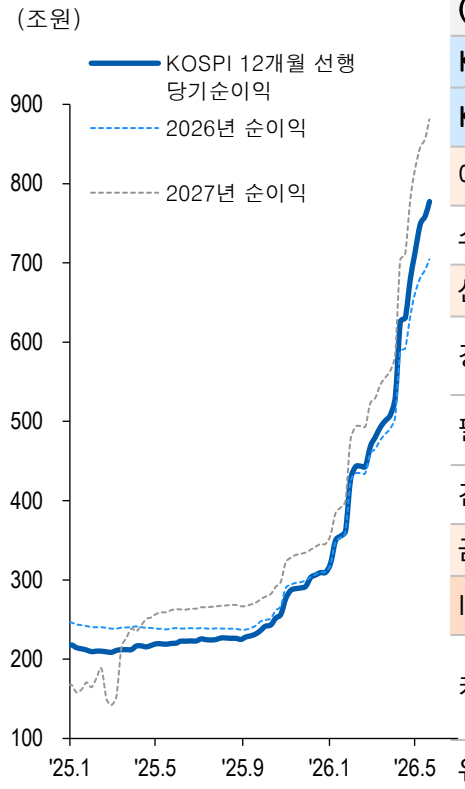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5월 21일 종가 기준

26년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700조원 돌파, IT 외 섹터로 온기 확산

- KOSPI, KOSDAQ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전주 대비 24조원 증가
- KOSPI IT 섹터 이익 증가 이번주도 지속. 특이점은 증가분 24조원 중 IT 섹터 15조원, 그 외 섹터로 온기 확산. 특히 산업재, 에너지, 금융 섹터 상향
- 에너지, 상사/자본재, 보험, 조선 업종 주간 EPS 상승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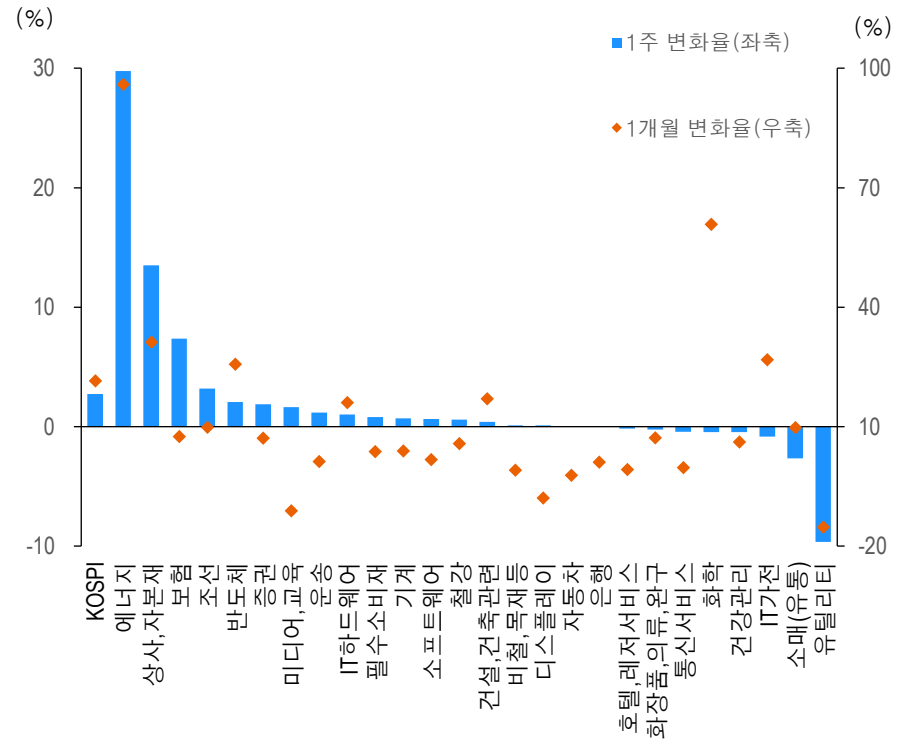
KOSPI, KOSDAQ 섹터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조원)	현재	전주	증감
KOSPI	704.5	680.8	23.8
KOSDAQ	10.2	9.8	0.4
에너지	13.5	9.3	4.2
소재	6.7	6.6	0.1
산업재	73.4	68.8	4.5
경기소비재	34.8	34.9	-0.2
필수소비재	4.3	4.1	0.2
건강관리	6.8	6.6	0.2
금융	47.4	46.1	1.3
IT	509.3	494.6	14.7
커뮤니케이션	10.0	9.9	0.1
유틸리티	8.5	9.6	-1.1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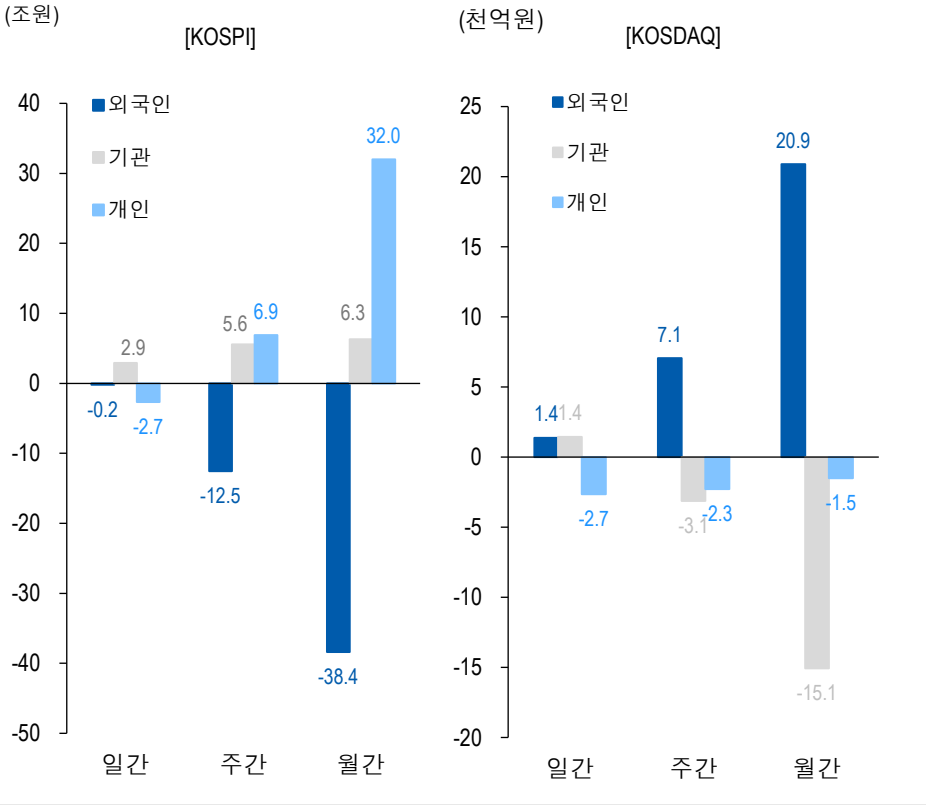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기관 & 개인 동반 반도체 저가매수

- 외국인 주간 12.6조원 순매도. 대형주 순매도에도 개인 6.9조원, 기관 5.6조원 순매수하며 차익실현 매물 다 받아낸 상황 반도체, 자동차 등 대형주 중심
- 건설, 헬스케어, 에너지 업종 외국인 순매수. 차익실현 매물 출회 구간에서 기관과 개인이 호실적 업종 저가매수세 나선 것으로 추정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건설,건축관련	반도체	반도체
	건강관리	상사,자본재	자동차
	에너지	IT하드웨어	기계
	필수소비재	은행	조선
	통신서비스	조선	IT하드웨어
순매도 상위	상사,자본재	필수소비재	은행
	조선	건설,건축관련	상사,자본재
	IT하드웨어	건강관리	에너지
	자동차	증권	건설,건축관련
	반도체	기계	보험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5/20) 결과 및 영향

결론: 불확실성 해소는 당연한 것이고, 내용도 생각보다 긍정적이다

항목	잠정합의안 핵심	주식시장 영향력
성과급 재원	DS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설정	긍정적. 기존 노조 주장하던 15% 수준에서 완화. 애널리스트 추정치 대부분에 10% 선반영 되어 있음
지급 상한	지급률 한도 없음	중립~긍정. 직원 보상 기대는 확대되지만, 현금이 아닌 주식 지급이라 현금흐름 훼손 우려는 낮음
성과급 분배	부문 40%, 사업부 60% 공통조직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적자 사업부는 공통 지급률의 60% 적용	긍정적. 성과주의 원칙을 완전히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메모리·공통조직 불만을 완화. 파업 리스크 축소 요인
지급 제도화	기존 OPI와 별도로 DS 특별성과급 신설, 향후 10년 조건부 적용	긍정적이지만 조건부. 노사 갈등의 반복 가능성을 낮춘 점은 주가에 우호적. 다만 장기 고정 보상 구조로 인식되면 피크아웃 국면에서는 부담
지급 방식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 1/3 즉시 매각 가능, **1/3은 1년, 1/3은 2년 매각 제한**	가장 긍정적. 현금 유출이 아니라 자사주 지급이라 단기 FCF 부담 제한. 락업으로 즉시 매물화도 제한
DX·CSS 보상	DX부문·CSS사업팀에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	긍정적. DS 외 부문 불만을 낮춰 파업 확산 리스크를 줄이는 완충 장치
절차	노조 총파업 유보, 조합원 찬반투표 예정	단기 주가 핵심 변수. 가결 시 파업 리스크 해소로 긍정, **부결 시 불확실성 재확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아이디어 : 백화점, 이 많은 성과급이 향할 곳

- 반도체 호황은 기업 실적에 그치지 않음. 임직원 성과급 지급 통해 지역 소비로 확산되는 구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업장이 밀집한 경기 남부의 경우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연결, 백화점의 객단가 및 방문객수 동반 개선 확인
- 명품 등 고마진 소비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백화점주는 반도체 업황의 2차 수혜주로 재평가. 반도체 이익 사이클 → 성과급 → 내수 진작으로 전이. 백화점 ,즉 소매(유통) 업종에 대한 실적 모멘텀과 주가 리레이팅 논리로 작용

1분기 동탄 백화점 매출 호조

반도체 호황 타고...롯데百 동탄점도 날았다

한국경제 원문 | 기사전송 2026-04-15 06:01 최종수정 2026-04-20 16:39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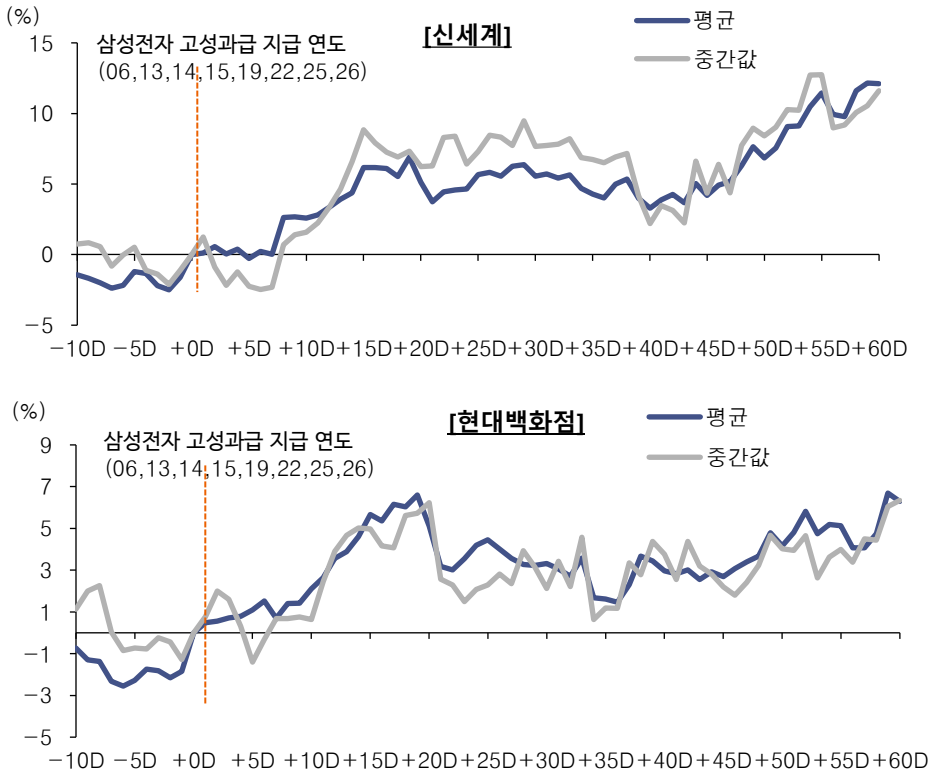
1분기 매출 25% 깜짝 증가

'삼전닉스' 공장 있는 경기 남부
반도체 특수로 고객 씀씀이 커져

신세계 사우스시티 매출 21%↑
불가리 등 주얼리 판매 불티

자료: 한국경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고성과급이 지급 되었을 때 실제로 백화점 주가가 올랐다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Market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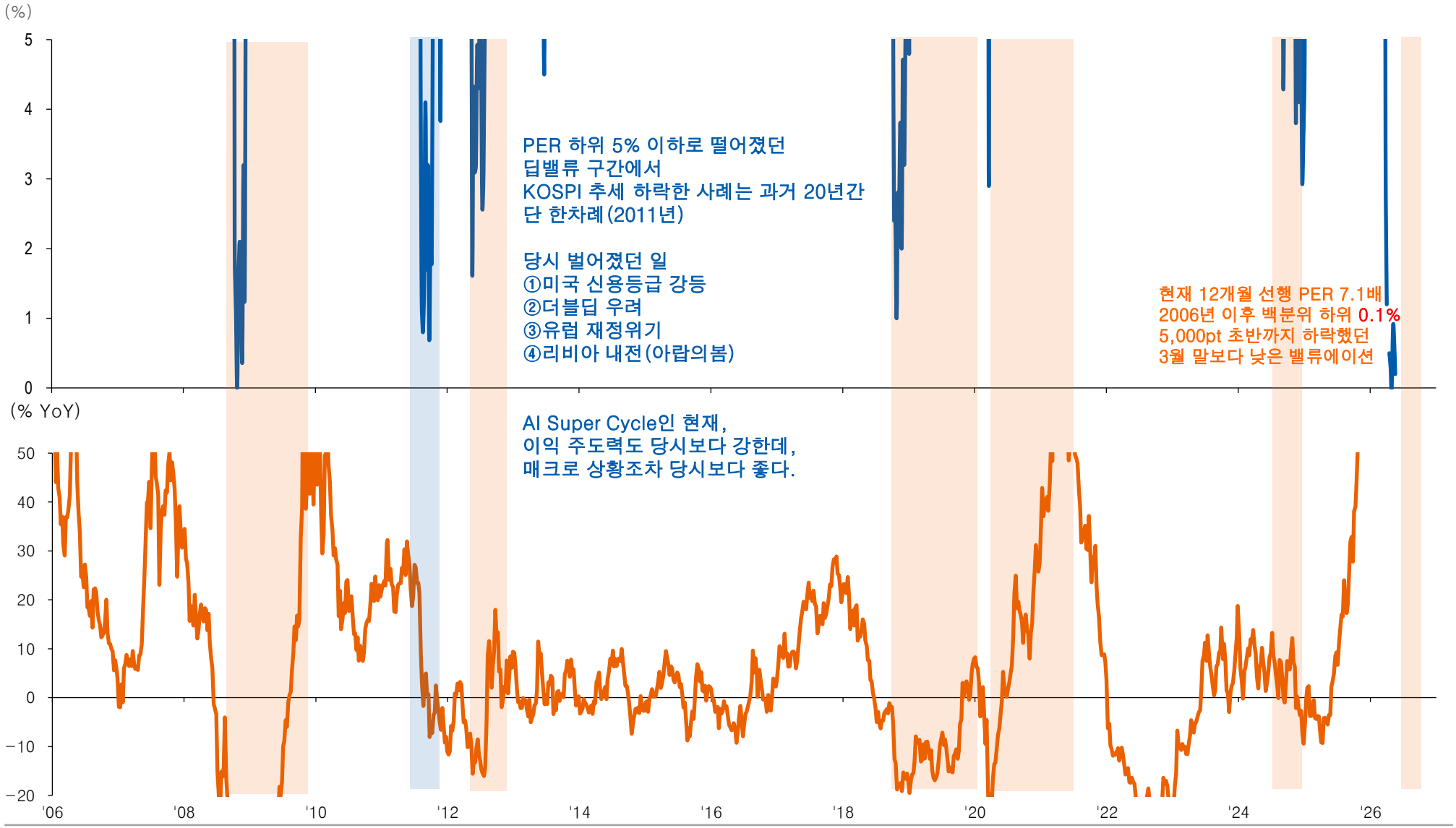
5월 4주차 주간 일정

	5월 25일(월)	5월 26일(화)	5월 27일(수)	5월 28일(목)	5월 29일(금)
경제지표		미국) 5월 CB 소비자신뢰지수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일본)5월 도쿄 Cpi
정치	**한국, 홍콩, 영국, 미국 휴장**				**미국 ASCO 2026(~6/2)**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	미국) 갭, 베스트바이	MSCI 분기 리밸런싱 반영일
주목 Point	실적 일정도 소화했고 중요 일정도 부재한 한주. 휴장 이후 재개되는 수급 공백 해소와 28~29일 예정된 매크로, 수급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여부가 주식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으로 작용할 전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현지 시간 기준

과거 20년간 PER 밸류에이션 중 하위 0.1% 구간, 매도 실익이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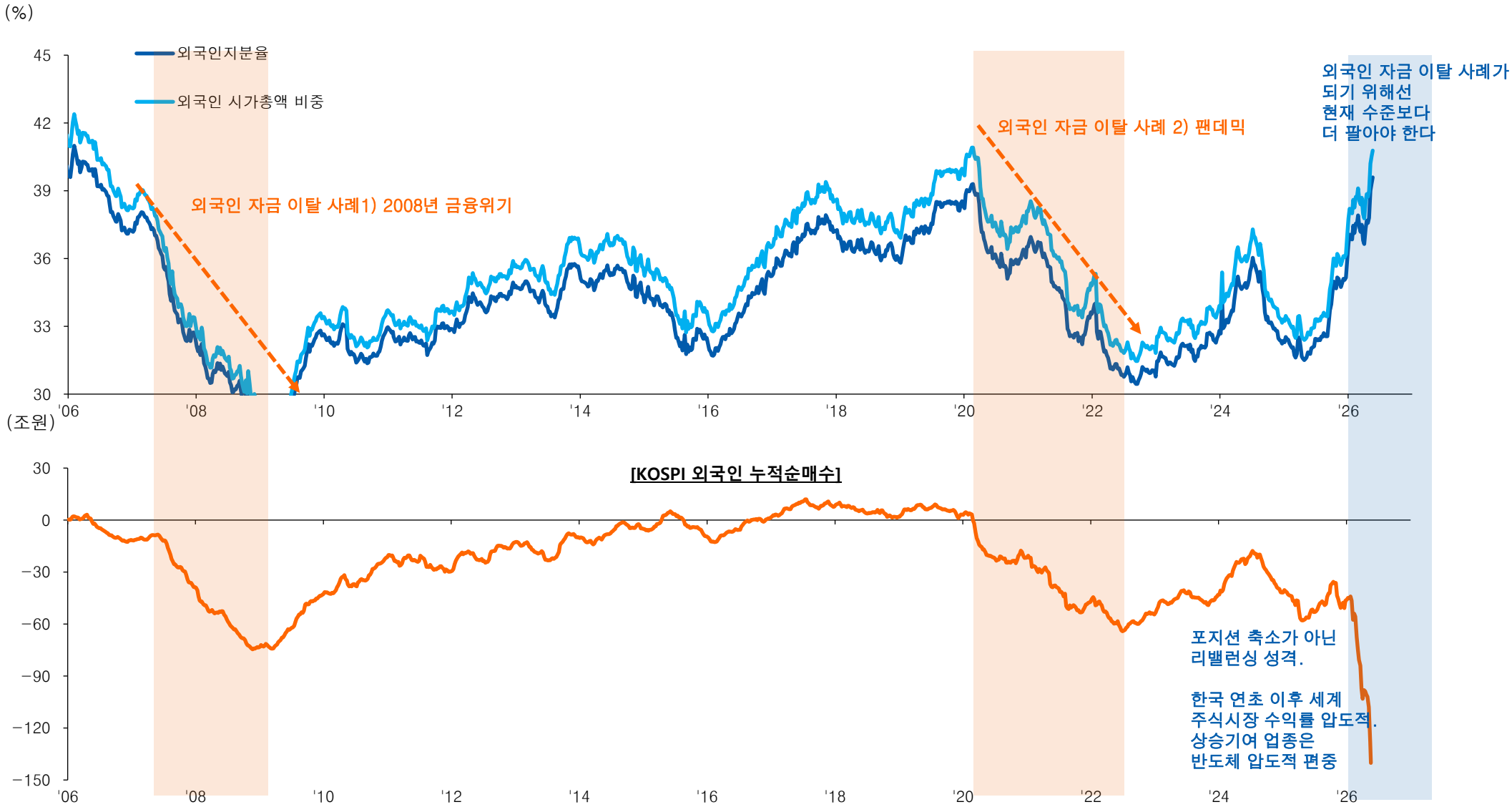
(위) 12개월 선행 PER 백분위 (아래) KOSPI 전년 대비 수익률. 딥밸류 영역에서 딥밸류 야기한 리스크 완화는 강한 반등을 야기해 왔다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이탈? 지분율은 20년간 최고 수준! 순매도대금 절대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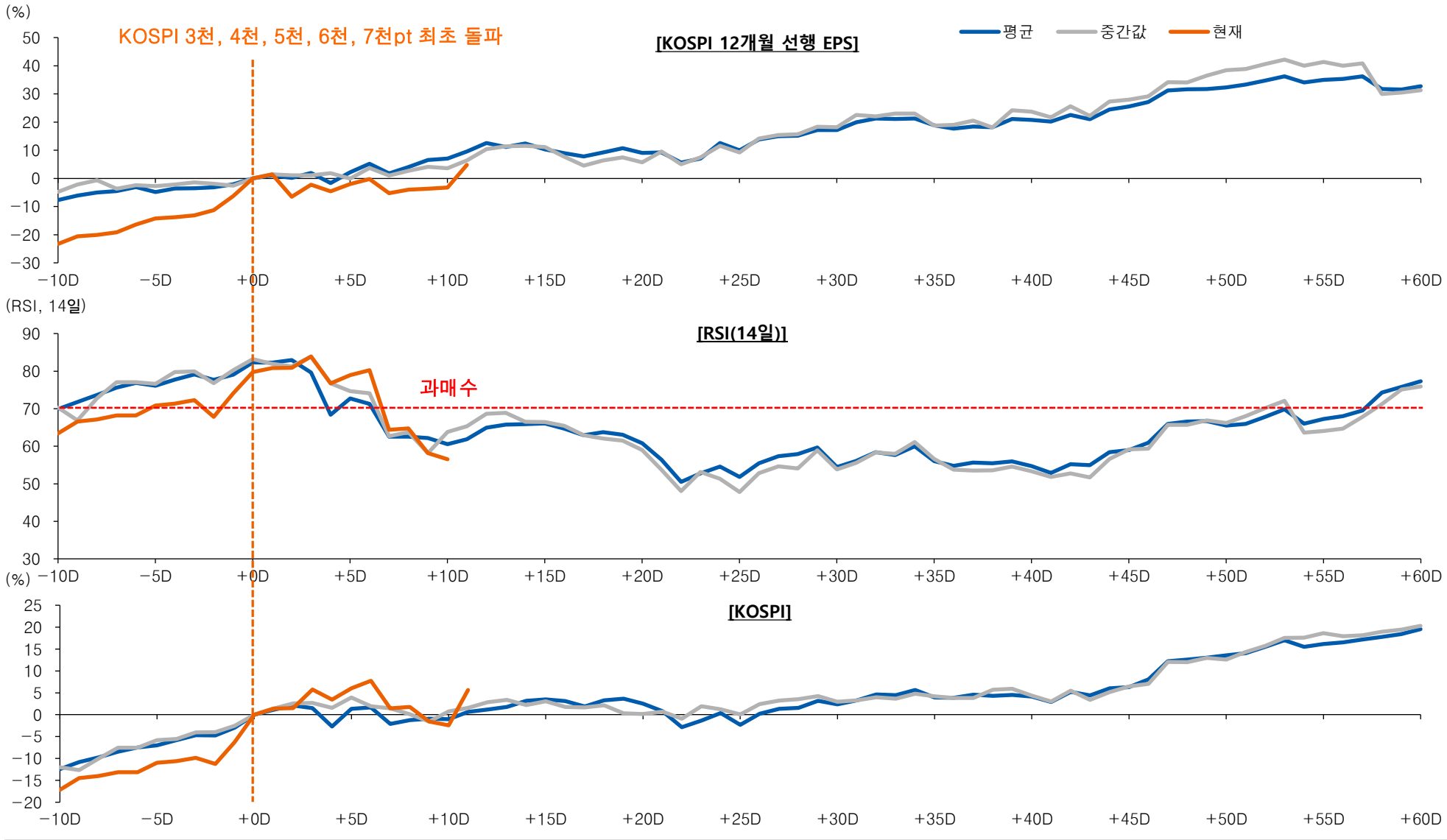
(위) KOSPI 외국인 지분율 (아래) 외국인 누적 순매수, 정말 외국인이 Sell Korea를 하는 것이라면, 더 팔아야 한다.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① EPS 상승 추세 유지 & 과매수 구간 탈피 & 상승 추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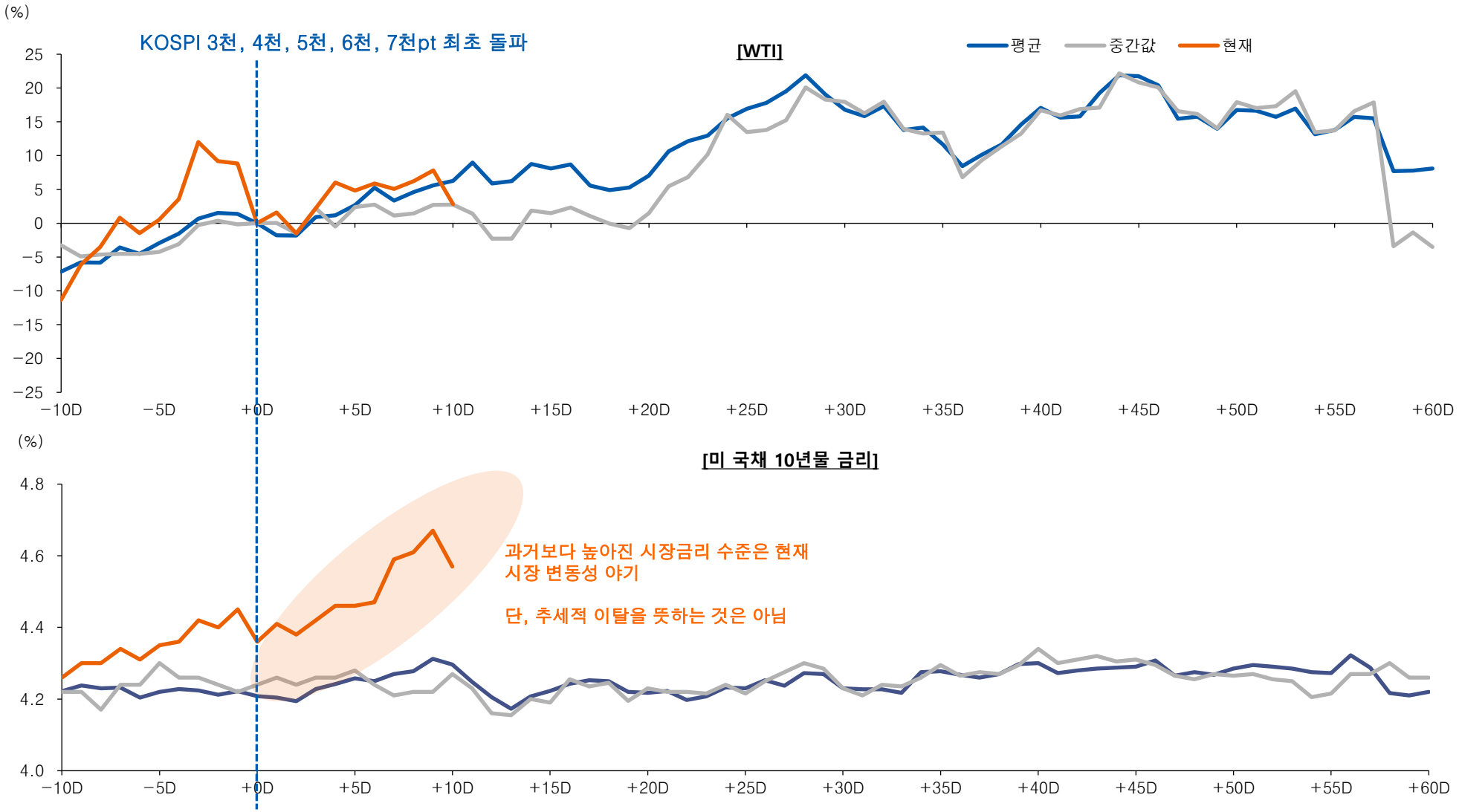
25년 하반기 이후 KOSPI 3,4,5,6,7000pt 돌파 전후 EPS, RSI(14일), KOSPI 수익률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② 유가와 금리는 상승 추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25년 하반기 이후 KOSPI 3,4,5,6,7000pt 돌파 전후 WTI, 미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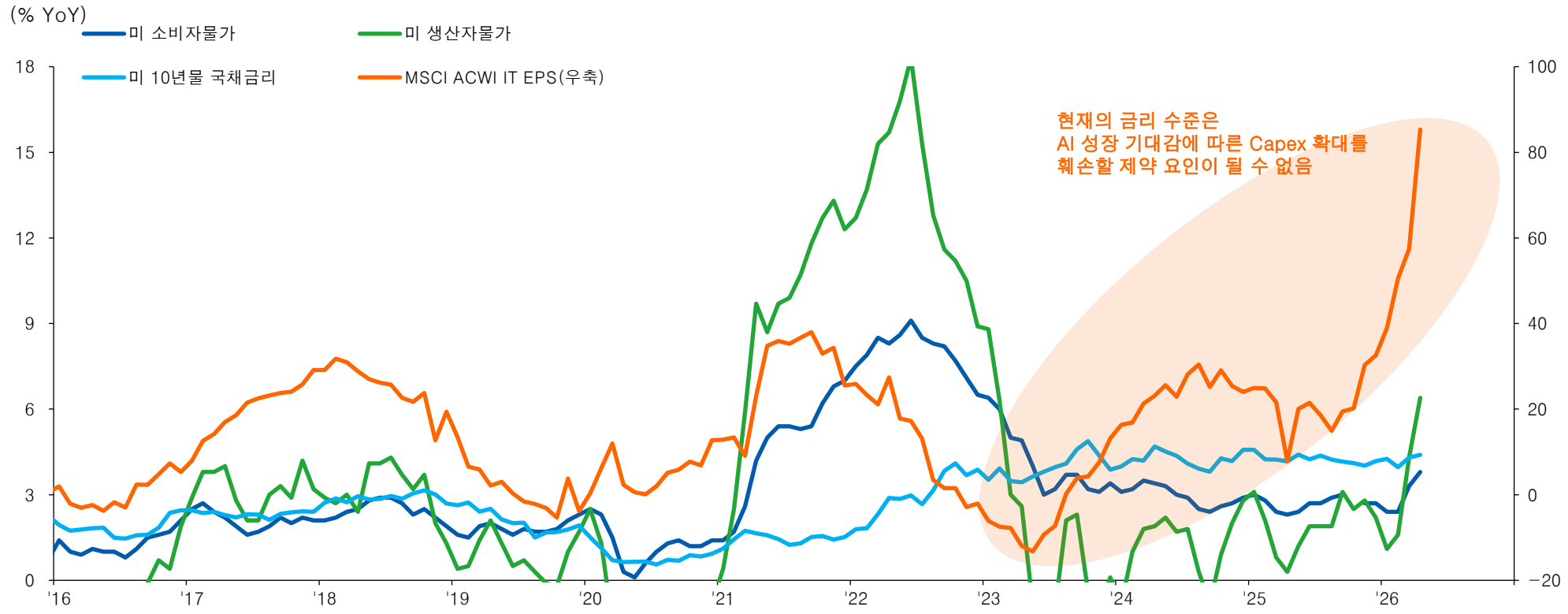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금리 오른다고 클로드, 챗GPT 해지하실 건가요?

- 4월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모두 예상치 상회. 미국 이란 갈등 최근 재차 심화되며 유가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연결. 우려 논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 오르면, 시장금리 급등하고 인플레 우려에 기준금리 인상하면 빅테크 Capex 확대 더 이상 못한다는 것

- 유가와 금리 상황이 할인율 부담을 키우는 것은 사실. 하이퍼스케일러의 AI Capex는 경기민감 설비 투자가 아니라는 점 다시 강조. 클라우드, AI 매출 동반 성장과 수익성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상황. IT EPS 꺾이지 않으며 반도체 강세 지속, 신고가 경신 중. 고금리여도 AI 투자 ROI가 더 크다는 점 명심. AI Capex? 안하면 영원히 경쟁에서 이탈되는 치킨게임

이번 AI 사이클의 본질은 기업의 IT 장비, 소프트웨어 투자가 실적을 견인하는 B2B Capex 성격. 과거 소비 경기 주도 국면과 본질적으로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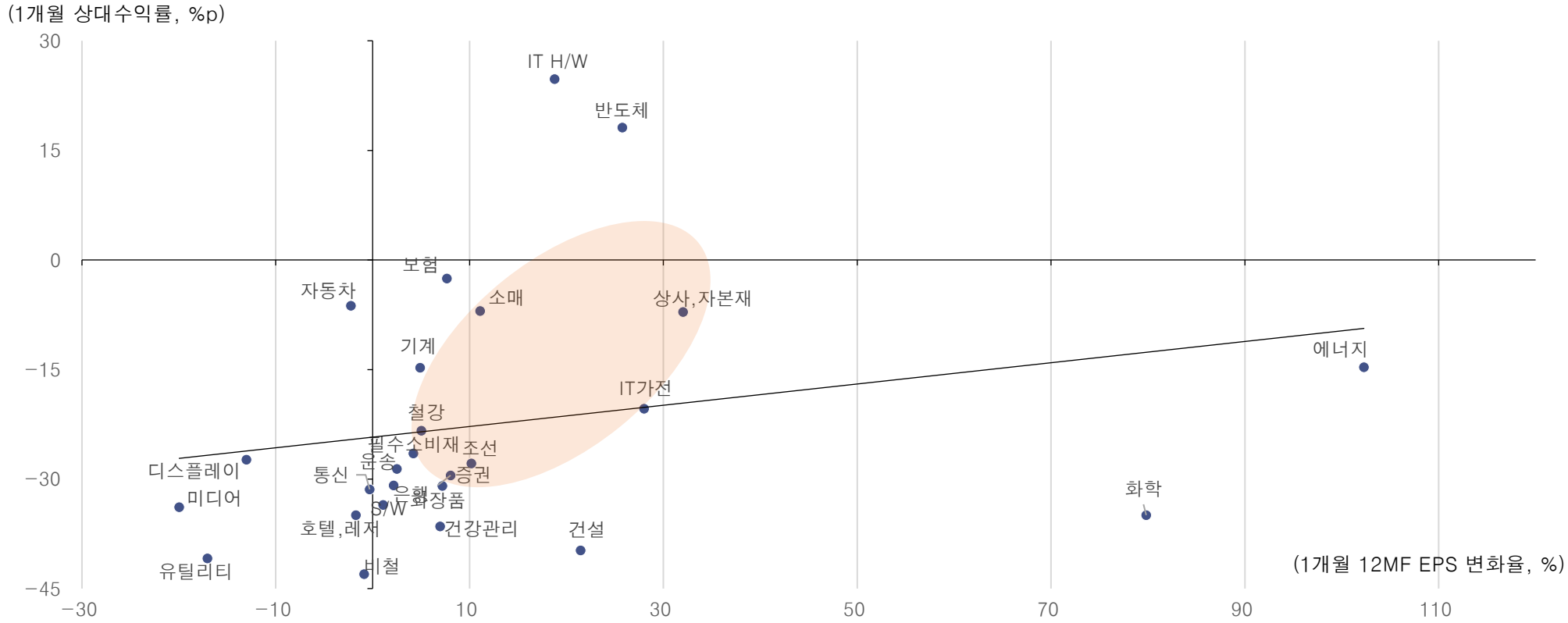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업종 전략: 반도체와 함께 낙폭 과대 실적주 비중 확대

- 반도체 이익 주도력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반도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반등장에서 소외주의 성과보단 기존 주도주 성과가 더 우수
- 낙폭 과대 실적주(2차전지, 방산, 조선, 증권)와 낙폭은 작지만 모멘텀(소매) 업종 선호. 상사/자본재의 상대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까닭은 방산주 성과가 아닌 지주 성과(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확대 위한 그룹사/지주사 주가 동반 상승)로 인함을 고려

반도체 업종 절대 비중 유지하며 낙폭과대 실적주 저가매수 : 2차전지, 증권, 방산, 조선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知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